



# 미제가 또 다시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일수록 역사에 보다 귀중한 진리가 새겨지는 법이다.

위대한 수령의 영도 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보다도 정복할 수 없다.

우리 인민의 결집한 조국수호정신과 혁명의 기상이 조국의 신과 불에 차넘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남긴 이 고귀한 진리는 오늘날 총천연성 오일애 승리의 함성마당 새세계를 열어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교육 《세계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나는 항쟁생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싸워왔다. 나의 일생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을 해지거나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놈들을 나는 한번도 용서하지 않았다.》

명장의 담력과 배짱은 전쟁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지략과 함께 장군들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연의일이 바로 전쟁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동서고금에 지들의 장대한 무력에 겁을 먹은 장군들의 나약성과 우유부단성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풍랑타고 강당의 수치를 당한 실례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1950년 여름의 준엄한 나팔을 울리시며 때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수호전으로 힘있게 불려오시며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침략자들을 단호히 정벌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이 가슴깊게 인자되었다.

6월 25일, 미제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를 소집하시었다. 회의실로부터 나오시면서 고시하시던 미국놈들이 조선우렁찬 울성이 울려왔다.

놈들이 어서같이 쏘아댔소.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잡듯 보았소.

회의실주석대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장대를 돌리시며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잡듯 보았소. 손가락을 우습게 얹다, 손가락이 뽕뽕이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잡듯 보았소. 미제놈들이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어 아 한다고 하시었다.

불의에 밀려드는 대적앞에서 너무

도 태연자약하시던 그이를 우리로써 회의 참가자들은 이 전쟁은 벌써 승리한 전쟁이라는 확신으로 가슴을 베풀었다.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 방송연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는 그 얼마나 천만군민의 심장을 열세게 울려잡았던가.

인류역사는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걸기만 한 인민들은 언젠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의의 투쟁입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 인민의 편에 있을 것입니다. ...

우리 수령님의 방송연설은 말그대로 전승의 우뢰소리가 되어 세계를 진간시켰다.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적전을 개시할 때에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적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며 남으로 남으로 같이 전진한 인민군부대는 적의 퇴각도 겨우 조밀한 38° 선지역의 기본방위단 단숨에 소멸하고 전쟁이 일어난지 단 3일만에 적의 이상인 서울상공에 공화국을 자랑노이 휘날렸다.

우리를 무사히 추격할지언기 어떻게 하나 공습의 공격했!

현수공적작전방침을 제시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지령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하여는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인민군부대는 한달 남짓한 기간에 남만주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 이상을 해방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고있는 조선혁명박물관 관람자들

참으로 통쾌한 전투들이 비례할 정도로 하고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였다.

우리의 영웅한 해병들은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의 울지이는 심》이라고 자처하던 미해군의 풍선양함을 격침시켜 세계해전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적들이 《미군의 비극적인 패주의 첫장》이 열렸다고 자랑하던 오산전투, 단 이틀사이에 물먹은 담배처럼 무너진 공강방어진, 《하늘의 요새》라고 뽕내던 《B-29》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수많은 적기들이 격추, 총비격으로 바뀌어진 《크리스마스총공세》...

적들의 《진공공세》를 격파분쇄하고 미제침략자들을 서산박인의 운명에 몰아넣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는 그 얼마나 비범한것인가.

력사의 그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인민군지휘원들에게 당의 좋은 방침이 있고 현명한 영도가 있으며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군대가 있는 한 우리는 능히 적들을 격파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새로 대동맹자리에 들어있는 아이젠하워의 귀환을 꾀해 후퇴할것은것으로 되어 조선에서 미국의 운명이 서산박인의 비운으로 기울어지는 전환점으로 되게 할것이라고 힘주어 고시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의 교시는 지휘정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명령의 힘을 북돋아주었다.

적극적인 전진방어진, 그것은 미제의 승리를 드세게 조이였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도시불과 마을에서부터 아침부터 일요일특유의 흥겨운 분위기를 감돈다. 젊음의 아이들이 가정의 하루계획을 잡으며 어른들의 합침을 제촉하는 소리에 더욱 즐거워지는 일요일이다.

하지만 찾아오는 일요일이면 인민의 마음 즐겁기만 하였던가, 조국의 산과 들에 싱그러움은 6월의 이 계절에 맞이하는 일요일이면 천리방성초소의 정령들이 울려온 총데에는 원수적멸의 서발음이 돈다. 이 땅의 초목들마저 분노에 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한 책임을 벗어내려고 유엔의 강판을 동원하여 온갖 허위기만전진과 모략행동을 일삼았지만 조선전쟁의 진행정은 미제야말로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라는것을 여지없이 확증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날은 인류가 기억한다. 이 행성의 곳곳에서 잠고며 화염이 떠오르기 시작하던 전쟁발발의 날들은 마치도 일요일과 인연을 맺은듯싶지 않았던가.

주제 51 (1962)년 9월 중순이었다. 그날 김정일총동태대 군사사

실시 그때 미국이 만든 작전계획은 미국전에 선 서방나라들의 한다 하는 군함모양들과 수심명의 무르조이군대의 장성들이 이마를 맞고 고안해낸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들은 파멸계획으로 바뀌어지고 수많은 피명사단들과 제천장군, 제천대령들이 력사에 기록되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15개 추종국가군대와 남조선피뢰군, 일본군주주의자들까지 포함 200여만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였으며 화력밀도에서 전진사상 유례없는 《불마대전》을 폈다. 그러나 조선은 이길 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에 이르는 60여년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만미투쟁의 최전선에서 전승의 자랑스러운 전승을 줄기차게 이어온 공적들은 남았지않다.

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적들을 위락파라 하시는데를 보시고 김정일최고사령관님의 담력과 배짱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장군이 있기때문에 자신에서는 마음을 놓고있다고 하시면서 못내 기뻐하시었다.

미제의 무장간첩 《부세블로》호사건, 《EC-121》태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군의 수호전에 서면전투를 안아오시고 우리 조국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영생불과 자라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책동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외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을 강행한 첫날부터 침략적

## 공화국은 영원히 부강하게 살리라

단호한 결단, 즉사적인 반공적

주제 39 (1950)년 6월 25일,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입성에는 준엄한지도자 예전 되어있었다.

그날 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녘을 보고계시었다. 그대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진화종소리가 울려왔다. 적들의 무력침공에 대하여 보고한 진화는 끝났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침투설로 할하시었다. 적들은 북으로, 북으로 계속 밀고들어왔다. 평화유언이 울려나왔다. 평화유언이 울려나왔다. 평화유언이 울려나왔다.

전쟁이 일어난지 3-4일동안에 전국각지의 전진단원지수는 무려 8만 1850여명에 달하였다. 역사에 류례없는 전진단원전진이 시작되었다.

평화유언이 땅에 울려다진 순간에 공화국의 인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각이한 진과들이 지구를 덮을 때 정령에서는 우리 수령님의 방송연설이 울려져왔다.

북조선 전진 단원들이 그 열성을 보였다. 조국의 운명이 판가름되는 전쟁이라는 비상한 국면 앞에서 공화국의 전진 단원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진 단원들의 목소리는 이 땅 어디서나 울려나왔다.

6월 27일, 전진 단원들 결의 해나선 김일성총동태대 학생수는 2800여명이나 되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총합대회의 모든 학생들이 침략적 정을 도발한 리승만피뢰도당을 준령이 규탄하면서 전선으로 나갈것을 열렬히 희망하고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었다.

전쟁이 일어난지 불과 3-4일동안에 전국각지의 전진단원지수는 무려 8만 1850여명에 달하였다. 역사에 류례없는 전진단원전진이 시작되었다.

전진단원 포로된 한 피뢰군 사령의 전술사라 하였다.

《...전투가 시작되어 인민군대가 반공적 개시하게 되자 1선은 잠시동안에 격파되었으나 2선도 위협하게 되었다.》

김정일동태장은 동부전선해방 전투에서 용감히 떨어져서 만방크수유탄을 들고 적들속으로 돌입하였고 정학분대장은 의정 부해방전투에서 최후임무수행중 불의에 피뢰군 1개 대대와 맞대결이 되자 분대원들과 함께 수많은 적들을 살상포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화구를 막은 한 전사자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었다. 전사의 이름을 부르시던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고시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복숨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인민군전사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정의를 총칼로써 천후를 무찌러 공화국은 영원히 부강하게 살리라.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받아안고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섰다







